

요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

본문 : 요나서 4장 1~11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 1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 2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3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 4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5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6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영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 7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 버렸습니다.
- 8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의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9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 10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어 앓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 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 11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십이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사십일 후에 니르웨가 무너질 것이다!” 역지로 니르웨에서 외친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외침에 니르웨는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했습니다.
2. 니르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르웨에 재앙을 내리려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이 상황이 요나는 불만이었습니다.
3.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압니다. 은혜가 많은 분이시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니르웨를 용서해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 죽여주세요. 니르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5. 그런데도 요나는 니르웨 성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6.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 위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생긴 그늘이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7.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벌레가 나무를 갉아서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넝쿨은 죽어 그늘도 없는데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요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8. 이 상황에 또 화가 난 요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며 불평을 했습니다.
9.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무가 죽은 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나무를 아끼는데, 어떻게 내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십이만 명이 넘는 사람과 짐승들이 있는 니르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10. 나의 작은 것은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중요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11.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1.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요나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3. 하나님께서 아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요나도 아꼈나요?
4.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써보세요.